

IT산업 수출입 동향



우성제
KEA R&D Center
그룹장/수석연구원

지식경제부는 11월 IT수출이 86.4억달러, IT수지가 40.0억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5일 밝혔다.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연말 소비 심리 위축,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과 기저효과('07.11월 IT수출은 127.6억달러로 역대 두 번째 최고

치입)로 수출 증가율은 32.3% 감소

한편, IT수입은 반도체(19.3억달러, △33.5%)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9.7% 감소한 46.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무역수지는 40.0억달러 흑자를 기록, 전산업 수지 흑자(3.0억달러)를 견인

【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】

(단위 : 억 달러, %는 전년대비)

구 분	2008년		2007년		
	11월	1~11월	11월	1~11월	
수출	전체 산업	292.6(△18.3)	3,956.1(16.9)	358.1(17.0)	3,384.6(14.1)
	IT 산업	86.4 (△32.3)	1,247.3 (4.5)	127.6 (12.1)	1,193.9 (9.3)
수입	전체 산업	289.7(△14.6)	4,089.5(26.6)	339.3(26.8)	3,229.5(14.6)
	IT 산업	46.4 (△29.7)	692.9 (9.1)	66.0 (16.0)	634.9 (7.2)
무역수지	전체 산업	3.0	△133.4	18.8	155.1
	IT 산업	40.0	554.4	61.6	559.0

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

휴대폰(부분품 포함)은 경기침체로 인한 선진 및 신흥 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대비 25.4% 감소한 24.0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,

반도체는 업계의 감산과 투자축소 등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전

년대비 44.0% 감소한 19.5억달러로 부진하였다.

* D램 가격(1Gb, \$) : ('07.10) 2.8 → ('08.6) 2.3 → (7) 2.4 → (9) 1.7 → (10) 1.4 → (11) 1.1

* 낸드 가격(16Gb, \$) : ('07.10) 12.2 → ('08.6) 4.7 → (7) 4.0 → (9) 2.5 → (10) 2.2 → (11) 1.9

디스플레이 패널은 Full HD TV, 대형 모니터 등 패널의 전방산업 판매부진으로 전년대비 18.1% 감소한 18.6억달러를 수출하였다.

* TFT-LCD(TV용, 106.7cm, 달러) : ('08.1) 543 → (3) 535 → (7) 480 → (11) 383

주요 국가(지역)별 수출 실적

對중국(홍콩포함) 수출은 전년 동월('07.11월, 47.3억달러, 16.5%)의 높은 수출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기 및 수출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8.8% 감소한 33.7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,

EU 역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품목인 휴대폰(6.3억달러, △35.3%) 수출부진과 IT부품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37.5% 감소한 14.6억달러를 수출하였다.

미국(11.9억달러, △21.0%)은 그동안 수출을 견인하던 휴대폰(6.4억달러, △11.7%) 수출감소로 전년 대비 21.0% 감소한 11.9억달러를 기록, '08.3월 이후 9개월 만에 감소로 반전되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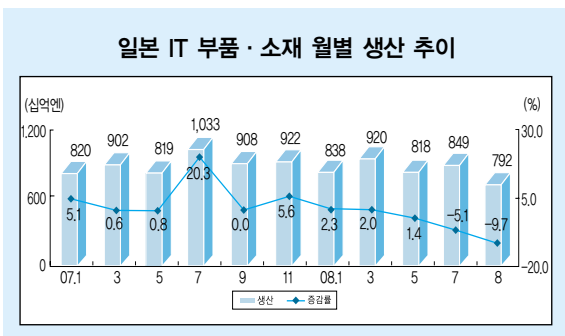
對일본은 패널(1.0억달러, △37.5%), 휴대폰(0.4억달러, △16.5%), 반도체(2.2억달러, △52.4%)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38.3% 감소한 5.5억달러를 수출하였다.

일본 IT 부품 · 소재산업 시장 동향

■ 생산 동향

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.7% 감소한 7천9백억 엔을 기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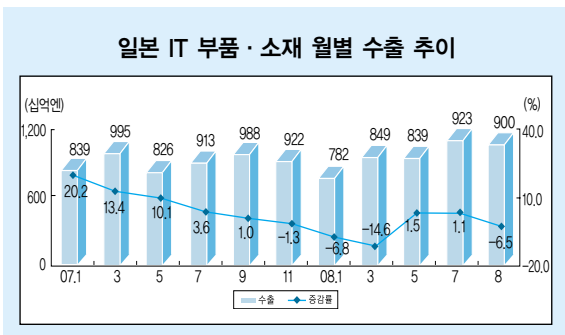
기타부품(-20.5%)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수동부품(-16.8%), PCB(-11.0%), 변환부품(-8.2%), 기구부품(-6.7%), 반도체소자(-3.6%) 순임. 반면에, 디스플레이(12.3%)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.



■ 수출 동향

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.5% 감소한 9천억엔을 기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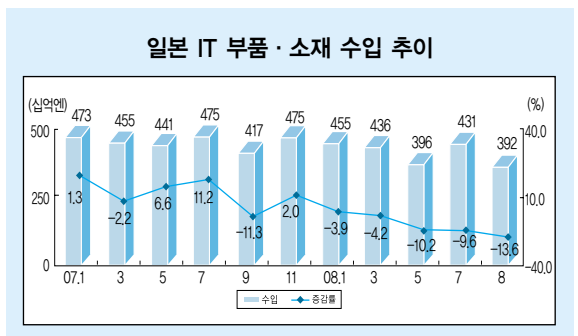
수동부품(-12.4%)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PCB(-11.7%), 기기부분품(-5.5%), 기구부품(-5.2%), 반도체소자(-0.9%) 순임. 반면에, 디스플레이(8.3%), 변환부품(2.1%), 기타부품(16.2%)은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.



■ 수입 동향

8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3.6% 감소한 3천9백억 엔을 기록하였다.

수동부품(-20.4%)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변환부품(-18.7%), 기기부분품(-15.2%), PCB(-12.3%), 기타부품(-9.6%), 기구부품(-2.0%) 순임. 반면에, 디스플레이(5.8%), 반도체소자(7.4%)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.



■ 내수 동향

8월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23.0% 감소한 2천8백억엔을 기록하였다.

IC(-32.2%)가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수동부품(-25.5%), 변환부품(-22.9%), 기타부품(-22.6%), PCB(-10.9%), 기구부품(-8.8%), 반도체소자(-4.7%) 순임. 반면에, 디스플레이(12.0%)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.

